

투데이 칼럼

故켈빈 킵툼 선수를 애도하며

현존하는 마라토너 중에 42.195km를 가장 빨리 달려 세계육상연맹(World Athletics)에 공인을 받은 마라토너 켈빈 킵툼(케냐) 선수가 지난 11일 오후 11시 17분경에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로부터 서북쪽으로 약 350km에 위치한 엘도렛(Eldoret) 지역과 훈련장소인 캅타갓(Kaptagat)으로 이어지는 도로상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을 통제하지 못하고 도로 밖으로 이탈하여 진행하다가 나무와 충돌한 후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함께 동승했던 코치도 사망하고 다른 동승자 1명은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킵툼 선수가 유명해진 배경에는 폴코스 3번 완주 탄에 2:00:35 초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

또한 올해 4월 네덜란드 로테르담 대회에서 인간으로서는 깨기 어려운, 마(魔)의 벽이라고 하는 2시간 이내의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가장 큰 선수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아왔었다(첫번째 완주 2022.12.04. 발렌시아대회 2:01:53초, 2번째 2022.04.23. 런던대회 2:01:53초, 3번째 2023.10.08. 시카고대회 2:00:35초~세계최고기록).

지금까지 보여준 과정이나 기록이라면 (필자가 달려 본) 아주 평탄한 로테르담 대회 주로는 충분히 2시간 벽을 돌파할 수 있다고 보았다. 더구나 1999년 12월생으로 만 24세에 불과하기에 전성기에 들어서기도 전이므로,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다면(얼마일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기록 단축이 가능하다고 예측되었었다.

세계최고기록(2023.10.08. 시카고대회 2:00:35초)을 세울 당시 경기 흐름을 분석해보면 전반 하프기록(1:00:48)보다 후반 하프기록(59:47)이 1분1초 빠르게 달렸다.

후반 하프를 더 빠르게 달린 것은 지방산화능력이 우수한 근육(Type II)이 많은 선천적인 신체적 특성(180cm/65kg)을 바탕으로 많은 훈련을 통해 지방대사(지방을 운동에너지인 ATP로 변환시키는 능력)가 탁월하게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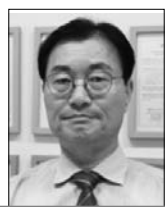
그 결과 탄수화물인 글리코겐(glycogen)의 고갈을 최대한 늦춰 후반 가속능력이 좋아져 기록수입이 가능했다 해석할

수 있다. 이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지 금방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나 시속 21.24km이며, 100m를 17.15초의 기록으로 42.195km를 달려낸 것이다.

또한 킵툼 선수의 의견에 따르면 경기 중, 후반에 기록계시차량의 시계를 보고 "더 빨리 달릴 수 있겠다"라고 한 것을 보면 기록 단축에 무공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줬던 선수라 아니할 수 없다.

킵툼 선수는 케냐(인구 5,220여만 명) 43개 부족 중 3번째(약 13.4%) 구성을 보이는 칼렌진(Kalenjin)족 출신으로, 칼렌진족은 케냐 중/장거리 선수의 70~80%를 차지하고 있으며(올림픽 메달리스트의 약 70%), 대부분 이틀 앞에 키리는(전례신화에서 번개라는 뜻을 담고 있다) 점두어를 사용하고 있다.(Kipchoge, Kipsang, Kiplagat...)

앞으로 단지 36초 남은 2시간 이내의 기록이 세워지기까지는 킵툼 선수의 짧은 생애의 아쉬움이 계속될 것이며 그의 영전에 명복을 빈다.



이 윤 희

파스코 대표이사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샌토스 제명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서 승리한 톰 수오지



13일(현지시간) 실시된 하원의원 보궐선거(뉴욕 3선거구)에서 승리한 톰 수오지(민주) 전 하원의원이 연설을 하던 중 환하게 웃고 있다. 이번 선거는 조지 샌토스(공화) 전 하원의원이 허위 이력과 선거 자금법 위반으로 의회에서 제명되면서 치러졌다.

이스라엘 인질 구출 작전 중 폭격당한 가정집



13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리파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이브라힘 가족의 집 잔해를 살펴보고 있다. 이브라힘은 이 건물 폭격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로 세 명의 아이 포함, 여덟 명의 가족을 잃었다. 그는 전날 다른 지역에 있는 건물의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이스라엘군의 작전 중 자기 집이 폭격당했다고 전했다.

사설

새만금호 관리수위제

홍수 방지를 전제로 새만금호의 관리수위를 '계절 변동 수위관리제'로 도입·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경우 특성상 대부분의 비는 여름철에 내린다. 그런데 대형댐은 댐 규정에 따라 홍수기인 6월 21일부터 9월 21일까지의 제한수위 시기에는 유효 저수량의 70~80%로 유지한다. 따라서 홍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계절에는 새만금호의 기준 수위(-1.5m)를 시화호 수준인 50cm에서 최대 1m가량 높이는 '계절별 관리수위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 수질 관리를 위해서는 해수유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확대 방안으로는 해저 터널 건설, 갑문 추가, 조력 발전 등이 있다. 조력 발전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력 발전은 수심 깊은 곳에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3~4m 보다 깊은 지역의 수질개선에 매우 효과적이다. 성층화로 인

한 저층부 산소 부족층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현재 갑문 운영은 3~4m 보다 수심이 깊은 하부층의 물을 순환시키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 해수유동 확대 시 세계자연유산인 갯벌의 형성이 가능하다. 내부 수위의 변화가 생겨 다시 갯벌이 생성되고 갯벌의 자연정화 능력이 수질 개선과 해양생태계의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를 새만금에서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복원된 갯벌(블루카본)의 탄소흡수로 탄소 배출권 확보가 가능해진다.

수산업 1차 산업에서만 발생하는 6000억~7000억원의 손해 중 절반 이상을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새만금호의 수질 악화의 원인으로 손꼽히는 것은 '매립 속도'이다. 속도보다 '부분 집중 완성형 개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전북 협치의 시대

전북의 정치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민선 8기 전북도정이 출범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협치와 소통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면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과거 선연적 의미가 짙었던 전북 정치권의 여야 협치는 민선 8기 들어서 실천적 의미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분위기다.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에 민주당이 주도하던 전북 정치 지형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지역 현안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이는 지역 정치가 정상화 되고 있는 과정이다. 도시사라고 하는 자리는 행정과 정부적 판단을 함께 해야 한다.

정부적 판단의 가장 핵심은 국회의원과 의회, 여야 간의 소통, 도의회의 소통, 교육감과 의회, 시장·군수와의 소통이다.

전북에서는 국민의힘이 너무 소수세력이다. 중앙에서의 역

할을 보면 국민의힘이 여당이다.

여당의 실체를 인정하고 여당과의 협치를 강화해서 전북의 예산과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데 실리주의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협치는 상대방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상대방에 대한 인정, 그 다음이 공존이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상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소통은 우선적으로 상대방이 그동안 행적, 실체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한다.

협상 과정을 통해 상대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야 정치권의 힘을 얻어내는 것이 도정의 성과를 내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바로 협치를 하는 것이다.

협상하는 과정은 다소 더디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올바른 길이다. 여야 정치권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전북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Large advertisement for Jeonju Maeil newspaper featuring a boat illustration and text about providing hope and vision for citizens.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